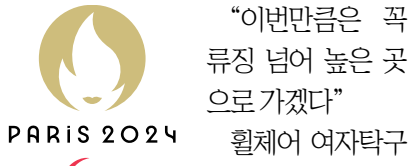


# 속적 류징 또 만난 서수연 “이번만큼은...”

### 리우, 도쿄 패럴림픽 단식 결승 맞대결서 잇달아 분투 파리 복식 결승 류징조에 패배, 단식 4강 ‘운명의 승부’



“이번만큼은 꼭 류징 넘어 높은 곳으로 가겠다”

월드랭킹 1위 서수연(38·광주시청)은 중국 선수 류징(36)의 이름을 들으면 자다가도 뺨을 때려 부딪는다. 서수연은 패럴림픽 데뷔 무대였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탁구 여자 단식 결승에서 류징에게 세트 점수 1-3으로 석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서수연은 4세트에서 8차례 듀스 혈투 끝에 17-19로 내주며 고개를 떨궜다.

류징과의 악연은 계속됐다. 2021년에 열린 도쿄 패럴림픽 탁구 여자 단식 결승에 오른 서수연은 류징에게 또 1-3으로 졌다.

4세트 8-10에서 점수를 내주면서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서수연은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탁구 여자 단

식 결승에서 류징을 3-1로 꺾으며 설욕에 성공했지만,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다시 류징에게 금메달을 빼앗겼다. 대표팀 동료 윤지유(24·성남시청)와 힘을 맞춰 출전한 여자복식(스포츠등급 WD5) 결승에서 중국의 류징-셰위안 조에 1-3으로 패하면서 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패럴림픽 결승에서만 3차례나 류징의 벽에 막혔다. 서수연은 이제 또 다시 류징을 만난다.

그는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 4에서 열린 파리 패럴림픽 탁구 여자 단식 스포츠등급 W5-1-28강에서 독일의 야나 슈페겔을 세트 점수 3-0(11-1 11-7 11-2)으로 가볍게 꺾고 4강에 진출했다.

4강 상대는 바로 그 이름, 류징이다. 경기 후 만난 서수연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류징을 계속 생각했다”며 “올해 국제대회에 류징이 출전하지 않아서 한 번도 맞붙지 못했는데, 지난 복식 결승이 좋은 예방수가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탁구 대표팀 서수연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탁구 여자 복식 WD5 결승전에서 중국 류징, 쉬에위안 조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아차피 류징과는 한 번 만나야 한다”라며 “이번만큼은 꼭 류징을 넘어 높은 곳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4강에 진출한 모든 선수의 기량이 좋아 한 장 차이”라며 “집중해서 꼭 패럴림픽 첫 금메달을 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수연은 이날 경기 승리로 동메달을 확보했다. 패럴림픽 탁구는 3-4위 결정전을 치

르지 않고 준결승에 진출하면 동메달을 준다. 모텔을 꿈꾸던 서수연은 대학에 입학한 2004년 자세 교정 차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다가 신경과 척수과 문제로 생겨 자제장애인이 됐다. 그는 재활 훈련 중 탁구를 접한 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한국 여자 휠체어 탁구 간판으로 성장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지난 3일 열린 LG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홈 최다 관중을 돌파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시즌 홈 최다 관중 돌파

올 시즌 누적 관중 102만 6천 235명...경기 당 평균 1만 6천 824명



KIA 타이거즈가 구단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다.

KIA는 지난 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1만 3천 89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 시즌 누적 관중 102만 6천 235명(경기당 평균 1만 6천 824명)을 기록하며 구단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작성했다. 지난달 28일 SSG와의 홈 경기에서 구단 역대 두 번째 100만 관중을 돌파한

지 2경기만에 이뤄 낸 기록이다. 종전 최다 관중 기록인 2017년의 102만 4천 830명(72경기, 평균 관중 1만 4천 234명)을 61경기만에 갈아치웠다. 또한 올 시즌 21번째 만원 관중을 기록 중인 KIA는 구단 최다 만원 관중 기록 경신에도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KIA는 최다 관중 신기록 수립을 기념하며 챔피언스 필드 입장 관중을 대상으로 보물 찾기 이벤트 이벤트 등 다양한 팬 감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SNS를 참고하면 된다. /주흥철 기자



지난 3일 열린 LG와 KIA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1회를 마치고 10년 연속 150이닝 투구를 달성한 뒤 이범호 감독으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역대 두번째 '좌완 최초' 10년 연속 150이닝 투구 달성'

## 양현종, '기록에 기록을 더하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투수' 양현종이 10시즌 연속 150이닝을 달성했다.

양현종은 지난 3일 LG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등판해 1회초 문보경을 삼진으로 처리해 이닝을 마무리 지으며 시즌 150이닝 투구를 달성했다. 앞서 시즌 149이닝을 기록 중이었던 양현종은 이날 투구로 종전 10시즌 연속 150이닝 투구 기록 보유자인 kt 이강철 감독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또, KBO 역대 2번째이자 좌완 투수

로는 최초 기록이다. 이날 경기에서 양현종은 6이닝 동안 6피안타 2볼넷 4삼진 3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시즌 11승째 (3패) 따내며 다승 부문 공동 4위로 올라섰다. 양현종은 2014년 171.1이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9년 연속 150이닝을 소화해왔다. 특히 지난해까지 KBO 9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 기록을 하면서, 올해 10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 기록 달성도 기대되고 있다. /주흥철 기자

## 전남도, 전지훈련팀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 10일까지 선착순 접수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가 2024 전국 전지훈련팀 관계자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를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2일간 전남도내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지훈련팀 관계자들에게 전남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전지훈련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 및 팸투어에서는 타 시·도의 전지훈련팀 감독과 코치를 대상으로 전남에 소재한 스포츠시설과 전지훈련 지원 인센티브 등을 상세히 소

개할 예정이다. 또 종목별 시·군 체육시설 현황을 직접 방문해 시설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전남에서의 전지훈련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가 자격은 타 시·도의 학교 운동부, 실업 및 프로팀의 감독이나 코치이며, 참가자 모집은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계자는 전남도청 스포츠산업과 전지훈련 담당자에게 전화(061-286-5540, 5541) 또는 이메일(kdjetlife@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박희중 기자

# 광주여대 오예진 2관왕 ‘명중’

## 올림픽제패기념 회장이양공

### 광주시청 김수린 금1·은1

국가대표 오예진(광주여대 3)이 올림픽제패기념 제4회 회장기대학실업 양궁대회에서 ‘금빛 낙엽’을 연달아 명중시켰다.

지난 6월 열린 제44회 대통령기 전국 남아양궁대회 3관왕 오예진은 4일 강원도 원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여자 대학부 30m경기에서 356점을 쏘 김세연(경희대 3)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356점을 기록한 서보은(순천대 2)은 최혜미(동서대 1), 심민주(인천대 2)와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전날 열린 70m경기에서 341점을 기록하며 첫 금메달을 신고한 오예진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여자일반부에서는 김수린(광주시청)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대통령기 양궁대회 70m경기에서 360점, 만점을 쏘 세계신기록 타이틀을 수립했던 김수린은 전날 열린 70m경기에서 347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청 김수린



광주여대 오예진

다. 김수린은 이어진 60m경기에서도 350점으로 신정화(대전시체육회·355점)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남자대학부에서는 이원주(조선대 4)가 30m경기에서 355점을 쏘 1위 김예찬(경희대 2·357점), 2위 최두희(경희대 3·356점)에 이어 김중우(한체대 1),

용혁중(한체대 4), 장준호(계명대 1), 김동훈(안동대 1), 이승우(안동대 3), 이정환(배재대 2), 김동현(경희대 1) 등과 공동 3위를 차지했다.

5일에는 올림픽라운드로 치러지는 개인전과 남녀단체전 경기가 이어진다. /박희중 기자

# 동강대 야구, '왕중왕' 시동

## 내일 U리그 왕중왕전 흥익대와 첫 경기

동강대 야구부가 9월 대학야구 U리그 왕중왕전과 10월 전국체전까지 가을야구 첫 상륙을 앞두고 있다.

홍현우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 야구부는 오는 8일 오전 9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U리그 왕중왕전 흥익대와 첫 경기를 치른다.

U리그는 올 4월부터 전국 48개 팀이 5개 조별리그를 펼쳤고 25개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동강대 야구부는 조별예선에서 개막전 이후 3연승을 달리는 등 광주지역 팀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두고 왕중왕전 진출과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광주시대표 경점사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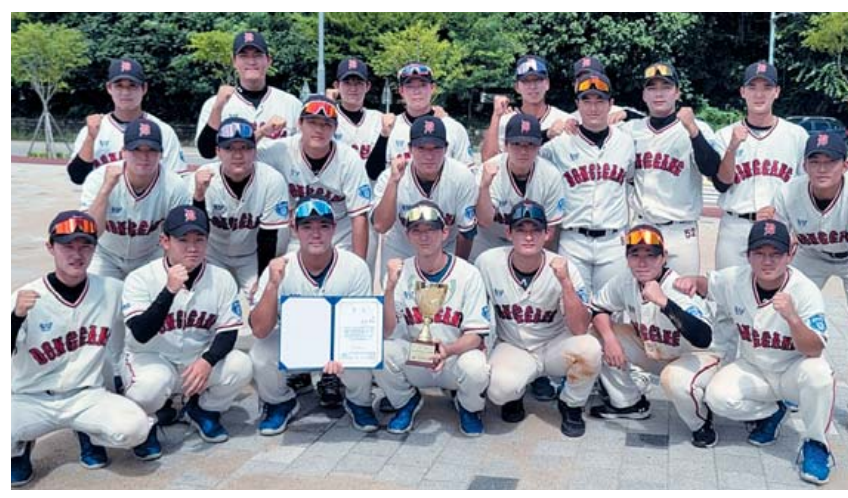
특히 동강대 야구부는 U리그 왕중왕전과 전국체전까지 올 가을야구 첫 상대로 모두 흥익대를 만난다.

흥익대 야구부는 동강대 홍현우 감독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의 레전드인 장재근 감독이 사령탑을 맡고 있다.

지난 4월 U리그 조별리그에서 흥익대에 패했던 동강대는 이번 왕중왕전에서 설욕전을 펼치고 16강에 진출하겠다는 각오다.

동강대 야구부는 에이스 투수 김유현(2학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유현은 지난 6월 6일 '한화 이글스 배고고' 대학 올스타전에 선발된 데 이어 10-1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2024 한



동강대 야구부가 지난 7월 전국대학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동강대 제공)

중 국제야구 교류전'에도 출전에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김유현 외에도 포수 최석준(2학년)이 한중 국제야구 교류전에 출전해 실력을 뽐냈다.

한편 지난 2004년 창단한 동강대 야구부는 매년 꾸준한 성장으로 대학야

구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강대는 전국대학야구대회 2014-2016년 하계리그 3연패 위업을 달성하며 우승기를 영구 보관 중이다.

특히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2021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매년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